

잡 크래프팅과 그릿(Grit)이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정미라¹, 정은^{2*}

¹한영대학교 간호학과, ²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s of Job Crafting, and Grit on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of Nurses: for Small and Medium hospitals

Mi Ra Jung¹, Eun Jeong^{2*}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College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그릿,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Y시에 소재한 3개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잡크래프팅($r=.679, p<.001$), 그릿($r=.572, p<.001$)에 유의한 순상관계수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잡 크래프팅($\beta=.50, p=.023$)과 그릿($\beta=.27, p<.001$)은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50.2%이었다($F=31.27, p<.001$). 본 연구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근거기반간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상실무현장에서 잡 크래프팅 활동을 촉진하며,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그릿을 성장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추후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rafting, grit,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is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51 nurses working in three small and medium hospitals, located in Y cit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2, 2020, to December 18, 202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small and medium hospital nurse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crafting ($r=.679, p<.001$) and grit ($r=.572, p<.001$).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at job crafting and grit predict 50.2% ($F=31.27, p<.001$) of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Through this study, to enhance the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of nurses in hospitals, it is suggested that hospitals promote job crafting activities in the clinical practice field to support evidence-based nursing in a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and to develop grit through continuous interest and steady effort.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to enhance the evidence-based practical competency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Keywords : Job Crafting, Grit,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Nurse

*Corresponding Author : Eun Jeong(Chunnam Techno Univ.)

email: jwon8045@hanmail.net

Received June 4, 2021

Revised June 23,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최근 보건으로 환경 변화 및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정보지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기반에 따른 임상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1]. 특히 임상실무현장에서 간호중재를 수행할 때 근거를 찾아 적용한 후 환자간호 결과를 개선하여 임상실무역량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는 최상의 과학적 근거와 통합하는 것으로 의료전문가와 대상자의 요구 및 가치를 최대로 이끌어내는 실무의 방법을 말한다[2].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간호사가 임상실무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결정 시 사용되는 지식 및 기술과 행동을 통합하여 사용되는 능력으로[3] 최근 근거기반실무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근거기반실무는 간호의 질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간호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해주며, 환자 간호에 있어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4]. 임상실무현장에서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 환자중심의 간호, 팀워크와 협력,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 등의 역량이 제시되고 있다[1,5,6]. 근거기반실무는 건강전문가들에게 실무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적합한 틀로 간호 임상실무 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간호를 가능하게 하며 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8].

국내 근거기반간호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근거기반간호의 실행과 관련된 주제는 근거기반간호 역량 및 수행의 장애요인과 활용요인을 포함한 근거기반간호의 준비도, 근거기반간호 관련 교육과 임상실무지침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9].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부교육과정에서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근거기반실무 통합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0].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최신의 근거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간호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의 실제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확인 되었다[6]. 국내의 연구에서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관한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1,11,12],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간호사에게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근거기반실무 지침은 새로운 근거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정기적인 검토에

의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13]. 따라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는 근거기반실무 역량 강화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변화시키고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의 업무에 긍정적인 동기를 갖도록 지지하며,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이 조직의 효과성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에 임상실무현장에서 간호사가 근거기반실무 수행으로 우수한 간호실무 제공과 환자에게 최상의 건강결과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간호실무의 질 향상을 위해 잡 크래프팅과 그릿의 증진이 필요하다.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은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발적으로 업무영역 및 관계영역에서 물리적, 인지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행동을 말한다[15]. 즉, 잡 크래프팅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적극적이며, 직무기술서 상에 주어진 업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특성과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스스로 적합하게 변화시켜 직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15]. 의료인 중 환자와 접촉이 가장 많은 간호사는 환자중심의 간호를 위해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갖추어야 함에 있어[5] 잡 크래프팅 행동을 많이 할수록 직무에 열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에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구성원 스스로 주어진 업무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잡 크래프팅 활동을 촉진하고, 임상실무현장에서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노력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릿(Grit)은 세운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어렵거나 도전적인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17]. 최근 간호사의 그릿은 끈기, 열정, 내적 동기의 속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임상에서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간호사의 그릿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18]. 대학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높을수록 잡 크래프팅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잡 크래프팅이 그릿과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임상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는 근거기반의 지식과 최신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기 주도성과 간호 전문직에 대한 열정이 요구되어진다[19]. 따라서 간호사의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끈기와 간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열정의 그릿을 높이기 위해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간호실무가 임상실무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며, 잡 크래프팅과 그릿의 변인의 연구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잡 크래프팅과 그릿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잡 크래프팅과 그릿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잡 크래프팅, 그릿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 정도를 확인한다.
3. 잡 크래프팅, 그릿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잡 크래프팅과 그릿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그릿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에 소재한 허가 병상수 기준 100-300병상의 3개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15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의 기준은 Lee 등[20]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의료법 제3조의 2에 따른 병원 및 동법 제3조의 3에 따른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으로 정의하며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본적인 병원업무수행에 익숙한 임상경력 6개월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21].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중간 효과크기(f^2) .15, 검정력($1-\beta$) .80, 독립변수 12개(일반적 특성, 잡 크래프팅, 그릿)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한 최소 127명을 만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잡 크래프팅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은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발적으로 업무영역 및 관계영역에서 물리적, 인지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행동을 말한다[15]. 잡 크래프팅은 Slemp & Vella-Brodrick[22]가 개발한 Job Crafting Questionnaire(JCQ)를 Lim 등[23]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본 한국판 잡 크래프팅 척도(JCQ-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인 업무 크래프팅, 인지 크래프팅, 관계 크래프팅으로 총 15개 문항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im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업무 .81, 인지 .85, 관계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업무 .85, 인지 .89, 관계 .85)이었다.

2.3.2 그릿

그릿(Grit)은 세운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어렵거나 도전적인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17]. 그릿은 Duckworth & Quinn[24]이 개발하여 Lee & Kwon[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성, 흥미일관성으로 총 12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 Kwon[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노력지속성 .87, 흥미일관성 .6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노력지속성 .88, 흥미일관성 .64)이었다.

2.3.3 근거기반실무 역량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는 최상의 과학적 근거와 통합하는 것으로 의료전문가와 대상자의 요구 및 가치를 최대로 이끌어내는 실무의 방법을 말한다[2].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Upton & Upton[26]이 개발한 Clinical effectiveness and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EBPQ)를 Lim 등[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인 지식, 태도, 수행으로 총 24개 문항이며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인 지식이 높으며 태도가 긍정적이고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수행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im 등[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지식 .93, 태도 .64, 수행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지식 .93, 태도 .78, 수행 .81)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보조원이 해당 병동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이 포함된 연구안내문을 제공하였다. 연구동의서에는 자발적인 연구참여와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과 설문지의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대상자만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총 15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고 완성된 설문지는 밀봉된 상태로 수거함에 넣도록 한 후 연구보조원이 직접 수거하여 개별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5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조사가 끝난 연구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역량 차이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그릿, 근거기반실무 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그릿, 근거기반실무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과 그릿이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2.92 ± 7.81 세로 23-29세가 68명(45.0%), 30-39세(33.8%), 40세 이상이 32명(2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여자가 146명(96.7%)으로 남자 5명(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73명(48.3%), 전문대졸 72명(47.7%),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 6명(4.0%)이었다. 직위에서는 일반간호사가 105명(69.5%), 근무부서는 병동이 94명(62.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임상 경력은 8.30 ± 7.70 년으로 1-5년 80명(53.0%), 6-10년 31명(20.5%), 11-20년 27명(17.9%), 21년 이상 13명(8.6%)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1)

Characteristics (M±SD)	Categories	n(%)
Gender	Male	5(3.3)
	Female	146(96.7)
Age(year) (32.92±7.81)	23-29	68(45.0)
	30-39	51(33.8)
	≥40	32(21.2)
Marital status	Married	60(39.7)
	Unmarried	91(60.3)
Religion	Yes	47(31.1)
	No	104(68.9)
Educational level	Diploma	72(47.7)
	Bachelor	73(48.3)
	Master or above	6(4.0)
Job position	Staff nurse	105(69.5)
	Charge nurse	35(23.2)
	Head nurse or above	11(7.3)
Work unit	Ward	94(62.3)
	Emergency room	25(16.6)
	Intensive care unit	15(9.9)
	Opd(artificial kidney room)	6(4.0)
	Others	11(7.3)
Clinical career (8.30±7.70)	1-5	80(53.0)
	6-10	31(20.5)
	11-20	27(17.9)
	≥21	13(8.6)
Work pattern	Fixed work	28(18.5)
	Shift	123(81.5)
Monthly allowance	200-250	15(9.9)
	251-300	84(55.6)
	≥301	52(34.4)

3.2 대상자의 잡 크래프팅, 그릿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정도

중소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은 6점 만점에 3.75±0.67점, 그릿은 5점 만점에 3.29±0.45점,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7점 만점에 4.27±0.71점으로 나타났다. 잡 크래프팅 하위영역인 업무 크래프팅 3.70±0.74점, 인지 크래프팅 3.77±0.79점, 관계 크래프팅 3.78±0.77점으로 나타났다. 그릿 하위영역인 노력지속성 3.26±0.49점, 흥미일관성 3.36±0.54점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실무 역량 하위영역인 지식 4.32±0.78점, 태도 4.19±0.83점, 수행 4.20±0.8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s of job crafting, grit,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N=151)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Job crafting	Total	3.75±0.67	1-6
	Task crafting	3.70±0.74	1-6
	Cognition crafting	3.77±0.79	1-6
	Relational crafting	3.78±0.77	1-6
Grit	Total	3.29±0.45	1-5
	Persistence of effort	3.26±0.49	1-5
	Consistency of interests	3.36±0.54	1-5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Total	4.27±0.71	1-7
	Knowledge/skill	4.32±0.78	1-7
	Attitudes	4.19±0.83	1-7
	Practice	4.20±0.89	1-7

근거기반실무 역량 중 지식영역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 '자신의 실무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4.78±4.29점, '아이디어와 정보를 동료와 공유'가 4.56±1.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로 하는 실무 지식을 연구 문제로 전환'이 4.11±0.88점, '주요한 실무 지식의 유형과 출처를 알고 있음'이 4.15±0.90점, '간호 연구 수행 능력'이 4.15±0.7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영역에서는 '근거기반실무는 전문적 실무의 토대가 된다'가 4.34±1.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업무가 과중하여 새로운 근거에 따라서 자신의 실무를 계속 업데이트 하기가 어렵다'가 4.06±0.94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영역에서는 '동료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한다'가 4.43±1.16점, '실무에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관련 근거를 찾는다'가 4.38±1.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의 표준에 대하여 찾은 문헌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가 3.69±0.96점, '자신의 전문성에 찾은 근거를 통합시킨다'가 4.17±1.0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core for items of the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N=151)

Variables	Items	M±SD	Rank
Knowledge/skill	Ability to identify gaps in your professional practice	4.78±4.29	1
	Sharing ideas and information with colleagues	4.56±1.02	2
	Ability to review own practice	4.45±0.92	3
	Dissemination of new ideas with colleagues	4.40±1.07	4
	Able to determine usefulness of material	4.37±0.89	5
	Apply information to individual cases	4.35±0.93	6
	Knowledge of how to retrieve evidence	4.34±0.90	7
	Ability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material	4.27±0.89	8
	Monitoring and reviewing of practice skills	4.26±0.89	9
	Information technology skills	4.25±1.03	10
	Ability to critically appraise	4.18±0.91	11
	Awareness of major information types and sources	4.15±0.90	12
	Research skills	4.15±0.79	12
	Converting your information needs into a research question	4.11±0.88	14
Attitudes	Evidence based practice waste of time vs. professional practice	4.34±1.23	1
	Stick to old ways vs. change	4.25±1.08	2
	Resent questioning vs. welcome questioning about clinical practice	4.12±1.00	3
	Workload	4.06±0.94	4
Practice	Share information with colleagues	4.43±1.16	1
	Track down relevant evidence	4.38±1.08	2
	Evaluate outcomes of practice	4.37±1.09	3
	Formulate clear question	4.27±0.99	4
	Integrate the evidence with expertise	4.17±1.07	5
	Critically appraise literature	3.69±0.96	6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정도는 결혼유무($t=2.05, p=.043$), 교육정도($F=3.88, p=.023$), 직위($F=4.23, p=.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수간호와 팀장급 이상이 일반간호와 책임간호사보다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았다(Table 4).

Table 4. Differences of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p)
Gender	Male	4.54±0.52	0.83 (.404)
	Female	4.26±0.72	
Age(year) (32.92±7.81)	23-29	4.18±0.60	1.60 (.204)
	30-39	4.27±0.60	
	≥40	4.46±1.03	
Marital status	Married	4.43.±0.84	2.05 (.043)
	Unmarried	4.17±0.60	
Religion	Yes	4.33±0.76	0.66 (.510)
	No	4.25±0.70	
Educational level	Diploma	4.14±0.71	3.88 (.023)*
	Bachelor	4.35±0.63	
	Master or above	4.88±1.31	
Job position	Staff nurse	4.24±0.65 ^a	4.23 (.016)* a,b<c
	Charge nurse	4.18±0.59 ^b	
	Head nurse or above	4.86±1.28 ^c	
Work unit	Ward	4.16±0.69	2.26 (.065)
	Emergency room	4.55±0.82	
	Intensive care unit	4.31±0.50	
	Opd	4.10±0.36	
	Others	4.60±0.89	
Clinical career (8.30±7.70)	1-5	4.20±0.60	1.81 (.147)
	6-10	4.25±0.68	
	11-20	4.29±0.72	
	≥21	4.70±1.23	
Work pattern	Fixed work	4.51±1.03	1.42 (.163)
	Shift	4.22±0.61	
Monthly allowance	200-250	4.22±0.68	0.04 (.953)
	251-300	4.28±0.72	
	≥301	4.27±0.73	

3.4 잡 크래프팅, 그릿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상관관계

중소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그릿과 근거기반실무 역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잡 크래프팅($r=.679, p<.001$), 그릿($r=.57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job crafting, grit,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N=151)

Variables	Job crafting	Grit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r(p)	r(p)	r(p)
Job crafting	1		
Grit	.578(<.001)*	1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679(<.001)*	.572(<.001)*	1

3.5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잡 크래프팅과 그릿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혼유무, 교육정도, 직위를 통제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인 잡 크래프팅, 그릿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Durbin-Watson 값이 2.25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공차한계는 0.62에서 0.91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9-1.61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잡 크래프팅($\beta=.50, p=.023$)과 그릿($\beta=.27, p<.001$)으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50.2% 설명하였다($F=31.27, p<.001$).

Table 6. factors related to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N=151)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88	.38		2.29 (.023)
Job crafting	.53	.07	.50	6.89 (<.001)*
Grit	.43	.11	.27	3.72 (<.001)*
Educational level (dummy master or above)	-.05	.22	-.01	-.23 (.813)
Job position (dummy head nurse or above)	.24	.17	.08	1.39 (.165)
Marital status (dummy married)	-.33	.09	-.02	-.36 (.719)

Adjusted R2= .502 (F=31.27,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그릿,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은 6점 만점에 3.75점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o & Kim[27]의 연구에서 3.82점으로 나타났다. 잡 크래프팅 하위영역에서 관계 크래프팅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 크래프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Jo & Kim[2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 크래프팅의 하위영역 중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상호영역을 변경하는 관계 크래프팅[20]은 본 연구결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현장에서 간호를 하면서 다양한 의료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계가 확대되면서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 난이도와 범위 등의 물리적 영역을 변경하는 업무 크래프팅[20]은 본 연구결과에서 하위영역 중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사는 간호지식인과 전문가로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고 요약하여 실무에 반영하고 평가해야 하므로[28] 이러한 방안으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강조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업무 크래프팅을 상승시키는 방안으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그릿은 5점 만점에 3.29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 Kim[29]의 연구에서 3.48점, Jeong & Jung[30]의 연구에서는 3.1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릿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와 열정을 의미한다[17].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근거기반간호 과정은 연구의 틀에 따라 적절히 기술하여 출판을 통해 확산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간호사에게 커다란 도전이며 어렵게 진행한 과정을 출판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흔히 발생하는 상황[28]에서 그릿은 근거기반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정도는 7점 만점에 4.2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31]의 연구에서 근거기반실무 역량 점수는 4.67점으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근거기

반간호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38%에서만 근거기반간호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결과[32]를 보면 임상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의 적용이 낮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하위영역인 지식은 4.32점, 태도는 4.19점, 수행은 4.20점으로 나타나 Lee 등[31]의 연구에서 지식이 태도와 수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지식영역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동료와 공유', 가장 낮은 문항은 '필요로 하는 실무 지식을 연구 문제로 전환', 수행영역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 '동료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한다', 가장 낮은 문항은 '기존의 표준에 대하여 찾은 문헌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Ryu 등[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임상현장에서 근거기반간호를 수행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높게 나타난 동료들과의 정보공유도 필요하지만 많은 근거 중에서 표준화된 실무로 임상현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와 탐색과 비평적 분석, 근거의 통합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과 근거가 만들어져 실무에 반영되어야 한다[28]. 따라서 근거기반의 실무 적용은 단기간에 학습하고 익히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이 필요하다[28].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차이를 보면 결혼유무, 직위, 교육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을 한 경우, 일반간호사보다는 책임간호사에서, 전문대졸보다는 4년제와 석사학위 이상에서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31]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학력이 4년제와 석사학위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83.7%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52.3% 결과와 대조를 보이나 석사학위 이상에서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은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와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부터 근거기반간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32]. Choi 등[32]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연구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167개(81.9%),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단독으로 개설한 대학은 19개(9.3%)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간호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근거기반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근거기반간호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 적

용을 통해 간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2].

본 연구결과 잡 크래프팅은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근거기반간호를 통해 스스로 변화시켜 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인 잡 크래프팅이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에게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실무지침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임상현장에서 경장영양의 경우를 보면 경장영양의 감시에 해당하는 위잔류량은 초판의 경우 50-100ml에서 250ml로 최종적으로 정기적인 위잔류량 측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되었다[33].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사가 특별한 임상현장에서 임상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하면 간호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물론 임상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간호실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32]. 따라서 잡 크래프팅을 통하여 중소병원 간호사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전문학사와 학사를 취득한 간호사들에게는 근거기반간호를 배울 수 있는 상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원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그릿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과 그릿의 변인을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한 그릿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임상현장에서 근거중심실무 간호를 위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간호사는 간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하는 그릿이 필요하며[18],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로 간호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거기반실무 역량 증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 학회나 세미나의 기회제공을 통해 최신의 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간호교육전담자, 프리셉터나 멘토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우선은 임상현장에서 임상질문과 관련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중소병원을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릿의 하위영역인 흥미일관성의 경우 도구의 신뢰도가 .64로 낮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의 임상현장에서 근

거기반실무 역량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학에서 새롭게 연구되어 지고 있는 잡 크래프팅과 그릿의 변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잡 크래프팅과 그릿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잡 크래프팅, 그릿이었으며,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5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1.27, p<.001$). 즉,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열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학회나 세미나의 기회제공을 통해 최신의 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다양한 의료기관을 확대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 C. Lim, K. O. Park, J. S. Kwon, J. S. Jeong, M. A. Choe, et al., "Registered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about evidence-based practice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7, No.3, pp.375-387, 2011.
- [2] N. Burns, S. K. Grove, *Understanding nursing research—building an evidence-based practice*, St. Louis: Saunders Elsevier, 2007.
- [3] D. Ilic, "Teaching evidence-based practice: perspectives from the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viewpoint", *Annals of the Academy of Medicine*, Vol.38, No.6, pp.559-563, 2009.

- [4] C. E. Brown, M. A. Wickline, L. Ecoff, D. Glaser, "Nursing practice,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barriers to evidence-based practice at an academic medical cent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5, No.2, pp.371-381, 2009.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8.04878.x>
- [5] J. S. Kim, M. O. Gu, S. Y. Jo,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practice readiness for tertiary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945-295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945>
- [6] S. A. Ryu, Y. S. Kim, Y. H. Kim, "Factors influencing of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and evidence based practice readiness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5, pp.448-460, 2016.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6.22.5.448>
- [7] M. L. Heye, K. R. Stevens, "Using new resources to teach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8, No.6, pp.334-339, 2009.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090515-06>
- [8] K. M. Williamson, M. Almaskari, Z. Lester, D. Maguire, "Utiliza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 knowledge, attitude, and skill of clinical nurses in the planning of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ing", *Journal for Nurses in Professional Development*, Vol.31, No.2, pp.73-80, 2015.
DOI: <https://doi.org/10.1097/NND.0000000000000140>
- [9] S. A. Ryu, S. W. Yun, Y. S. Kim, "Trends in evidence-based nursing research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3, No.4, pp.385-396, 2017.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7.23.4.385>
- [10] Y. H. Kim, S. A. Ryu, H. Y. Kim, "Effect of fundamental nursing class using evidence-based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38-49, 2018.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8.18.06.038>
- [11] Y. S. Kim, J. M. Kim, M. M. Park, "Factors influencing competency in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2, pp.143-153, 2015.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5.21.2.143>
- [12] S. K. Kim, H. H. Lee, G. H. Park, H. J. Kim, J. H. Choi, et al., "Nurses' evidence-based practice beliefs and competencies, and organizational suppor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4, No.2, pp.245-254, 2018.
DOI: <http://dx.doi.org/10.22650/JKCN.2018.24.2.245>
- [13] Y. A. Cho, M. O. Gu, Young, E. M. Yu, J. Y. Kim, et al., "Updates of nursing practice guideline for enteral nutri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6, No.1, pp.10-25, 2020.
DOI: <https://doi.org/10.22650/JKCN.2020.26.1.10>
- [14] M. S. Hyun, "Structural relationships of grit, job crafting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cusing on medical center employe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0, pp.259-267, 2020.
DOI: <http://dx.doi.org/10.22156/CS4SMB.2020.10.10.259>
- [15] A. Wrzesniewski, J. Dutton, "Crafting a job: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6, No.2, pp.179-201, 2001.
DOI: <https://doi.org/10.5465/amr.2001.4378011>
- [16] J. J. Lee, E. Shin, "The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and servant leadership on job engagement among hospital employee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job crafting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2, pp.29-40, 2020.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029>
- [17]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8] H. S. Park, K. M. Lee, N. Y. Shi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inical nurses grit scale (CN-GR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6, No.1, pp.55-64, 2020.
DOI: <https://doi.org/10.1111/jkana.2020.26.1.55>
- [19] A. N. Park, K. H. Chung, W. G. Kim,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1, pp.1-10, 2016.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6.22.1.1>
- [20] S. Y. Lee, J. Y. Lee, M. W. Jo, H. J. Kim, M. S. Ok, et al., "Preparation of evaluation plans to improve medical quality in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s(G000DY2-2017-112).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Korea, pp.11, Available From: <http://www.hira.or.kr/rc/icenter/study/getReportInfo.do?pgmid=HIRAA030095000000&recordCountPerPage=10&studyDataSeq=167&pageIndex=2&prevDataSeq=&nextDataSeq=&studyFldCd=&studyYear=&searchCnd=1&searchWrd> (accessed Dec. 2017)
- [21] S. H. Yoon & B. S. Kim, "New graduate nurses' stress, stress coping, adaptation to work, and job satisfaction: change comparison by personalit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2, No.3, pp.491-500, 2006.
- [22] G. Slemp, D. Vella-Brodrick, "The job crafting questionnaire: A new scale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employees engage in job craf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3, No.2, pp.126-146, 2013.
- [23] M. G. Lim, Y. J. Ha, Y. W. Soh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job crafting questionnaire

- (JCQ-K)",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21, No.4, pp.181-206, 2014.
- [24] A. L. Duckworth,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pp.166-174,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25] J. L. Lee, D. H. Kwon,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1, pp.245-264, 2016.
DOI:<http://dx.doi.org/10.21509/KJYS.2016.11.23.11.245>
- [26] D. Upton, P. Upton,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questionnaire for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3, No.4, pp.454-458, 2006.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6.03739.x>
- [27] H. H. Jo, E. Y. Kim,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health, and job crafting on intent to stay among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6, No.2, pp.172-180, 2020.
DOI: <https://doi.org/10.1111/jkana.2020.26.2.172>
- [28] Y. A. Cho, "Practical application and diffusion of evidence-based nursing", *Evidence and Nursing*, Vol.1, No.1, pp.1-3, 2013.
- [29] J. H. Park, N. Y. Kim, "The effect of nurse's grit, health perception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ien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2, pp.325-333,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325>
- [30] E. Jeong, M. R. Ju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on gri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3, pp.438-446,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3.438>
- [31] G. A. Lee, S. H. Shin, S. J. Ko, "Influenc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e managers' transformation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tyle on nurses' competency with evidence based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6, No.4, pp.305-315, 2020.
DOI: <https://doi.org/10.1111/jkana.2020.26.4.305>
- [32] M. Y. Choi, J. S. Jeong, J. S. Kwon, K. S. Kim, S. H. Lee, et al., "Current status of teaching evidence-based nursing to nursing students and educational strategies for dissemination", *Evidence and Nursing*, Vol.5, No.1, pp.4-15, 2017.
- [33] Y. A. Cho, M. O. Gu, Y. Eun, M. Yu, J. Y. Kim, et al., "Updates of nursing practice guideline for enteral nutri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6, No.1, pp.10-25, 2020.
DOI: <https://doi.org/10.22650/JKCN.2020.26.1.10>

정 미 라(Mi-Ra Jung)

[정회원]



- 2013년 8월 : 우석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ICT, 웰니스

정 은(Eun Jeong)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역량, 교수학습